

‘고창에서 백두까지’ 통일 염원 화폭에 담아

고창문화의전당서 8월 16일까지 ‘선운산기맥전’

봉산(鳳山) 정재경 화백의 ‘선운산기맥전(禪雲山氣脈展)’ 전시회가 8월 1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한국예총 고창지회 초대 전으로, ‘고창에서 백두까지, 하나야 할 조국 통일염원’이라는 주제로, 고창군과 고창문화원, 고창총·고(26·56회)동창회가 후원하고 있다.

(본보 7월28일자12면)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열린 개막식에는 유기상 군수, 임정호 부의장, 박종은 고창예총 회장, 정일송 고창한교 전교, 김용환 고창중학교 교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향을 찾은 정재경 화백의 전시회를 축하했다.



정재경 화백

정재경 화백은 고창군 이산면 남산 출신으로, 석곡초, 아산중, 고창고(56회)와 국립사범대를 졸업했다. 현재 전남 화순제일중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 분야의 후학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화백은 주로 광주와 전남 권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이 담아내는 주제와 작품성은 국내·외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 일본과의 교류 전시회, 다수의 단체전과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비엔날레와 함께 하는 아트 페스티벌, ‘통일염원 산해전중수목전’ 등의 개인전도 개최했다. 또한 얼마 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견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창예총의 초대로 처음으로 고향을 찾았다.



칠을 작품에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화가 가진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모티프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동양화의 화학적 틀까지 개혁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세계·추구해야 할 가치 구현

정 화백에게는 ‘봉산’ 외에도 ‘하석(雅石)’이라는 호가 하나 더 있다. 스승 금봉 박행보 선생이 지어준 것이다. 금봉 선생은 의제 허백련 선생의 수제자이다. ‘불은 비록 맑은 할 수 없지만 능히 너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석불 능언위아사(石不能言爲我師)’에 나오는 ‘석(石)’이 평생 봉산의 스승이 되길 바란 김봉 선생이 ‘돌 석 자에다가 봉산이 태어난 고창 이산면의 하 자를 따 하석(雅石)’이라 지어 주었다. ‘하(雅)’자는 맑다·바르다·우아하다는 뜻도 품고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을 찾은 유기상 군수는 “두고 온 고향을 못 있어 아직도 눈가가 마르지는 않은 축복한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과 애절한 심경을 화폭에 담담하게 담아낸 산해전중수목전(山海天重水墨展)을 보니, 분단의 아픔을 딛고 붓끝에서 피어나는 통일의 꿈을 열렬하게 믿는다”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정재경 화백의 고귀한 작품세계를 깨닫고,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일상 속에서 느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

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고창군의회를 대표해 개막식에 참석한 임정호 부의장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답답한 이 시기에 정재경 화백의 한국화를 찬찬히 감상하며, 그 공간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으로 채워보고 비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가져보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문화·예술분야 전반이 침체되고 문화향유 기회가 많이 줄어든 요즘, 오늘의 전시회는 희망의 샘처럼 군민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주고, 밝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박종은 고창예총 회장은 “봉산 정재경 화백의 이번 작품들은 고창 고창에서 백두까지 하나야 한다는 조국 통일을 생각하며, 모양성을 비롯해 금강산 등 조국의 모습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떠나 있어도 고향을 생각하고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재경 화백은 현재 중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의 예술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미술교육을 통하여 후학들에게 아름다운 미술의 세계를 넓혀왔음에 경의를 표하며, 정 화백이 성취하고 싶은 바를 다 이루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명한 화백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화백의 스승인 금봉 박행보 선생은 격려사를 통해 “붓과 씨름하며 붓타령·종이타령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진전하는 고해의 길, 같은 도반으로서 봉산과의 인연은 진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품연기에 꾸준히 노력하며, 학교수업에 충실한 뿐만 아니라 향학열과 재기발랄한 창작욕은 누구도 추종을 불허할만한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모양성부터 사계의 자연까지
담담하게 한국화로 옮겨

정 화백은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고향 고창에서 백두까지 하나야 한다는 통일염원을 담은 작품들”이라며, “고창 모양성, 금강산, 조국 산하, 사계의 자연 등을 담담하게 화폭에 옮겨왔다”고 전했다. 남도 문인회의 대가 금봉 박행보 선생으로부터 한국화를 사사받은 정 화백은 30여년을 한결같이 한국화 작가의 길을 몸소 걸어가고 있다. 한 시인은 정 화백의 작품을 가리켜 “흰색 화선지 위로 내려앉은 봉산의 붓끝 그림과 글씨가 평사년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경이로운 조화감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정재경 화백은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두고 온 고향을 못 있어 아직도 눈가가 마르지는 않은 축복한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고창에서 백두까지 하나야 할 조국의 모습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았다”면서, “우리 금강산을 그리고 글을 쓰며,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문화예술이 꽃피는 곳 고창의 군민들을 모신다”며 초대 메시지를 전했다.

정재경 화백은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사예협회, 한국문인화협회, 광주·전남문인화협회, 광주·전남서예협회, 광주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전남문인화협회 사무국장을 연임하고 있다.

내년 세종문화회관 본관에서 전시할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통일염원을 담은 개인전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 화백은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통일염원의 정신과 혼을 담아 온몸으로 그려가고 있다”면서, “민족의 대업인 통일의 염원을 품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의 담론과 추구가 나가야 할 가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정 화백

